

“상실·고통의 삶 사는 아웃사이드들의 이야기”



광주일보 박성천 기자 등단 20주년...세번째 소설집 ‘하루’ 발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제게는 고통과 역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적도 있었고, 가고 있는 길이 아득하여 다른 길로 들어설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소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창작에 대한 열정보다 ‘소설적 상황’, ‘소설적 삶’에 대한 나름의 사유와 단상을 견지했던 것 같아요.”

신춘문에 등단 20주년을 맞아 세 번째 소설집을 펴낸 박성천 작가. 광주일보 문화부 기자이기도 한 박 작가가 최근 창작집 ‘하루’ (문학들)를 발간했다.

이번 소설은 ‘한 잔의 술을 마셔야만 밤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당신은 왜 밤늦게까지 거리를 방황하고 있나요.” 소설 속 화자의 질문에 섣뜻 대꾸할 말이 없다면, 혹은 주인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박 작가는 “작품집 주인공들은 시간강사, 실직자, 아르바이트생 등 아웃사이드들로, 이들은 현실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상실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소외된 이들의 현실 이면에 드러워진 부조리하고 쓸쓸하며 아득한 풍경을 그렸다”고 말했다.

이번 창작집을 엮어내기 위해 박 작가는 기자 생활 틈틈이 창작을 병행했다. 어떤 작품은 “컴퓨터 폴더 속에 잠자고 있던 것”도 있고 어떤 작품은 “오랫동안 머릿속을 빙빙 돌다 활자화된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 손가락이 그 내 목소리의 일부”라는 말에서 창작에 대한 사유의 일면이 읽혀진다.

“더러 현실이 소설보다 훨씬 소설적인 경우가 많지요. 삶의 복잡다단함과 유연성, 현실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무늬와 진실은 결코 소설이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소설을 쓰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박 작가는 “마치 우아해 보이는 물 위의 백조가 수면 아래에선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물갈퀴를 휘젓는 것처럼, 삶은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어쩌면 물 위보다는 물속을, 외양보다는 내면을, 사실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소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미라”는 대학 사회의 일면을 그리고 있다. 시간강사인 화자는 대학사회를 카스트 못지않은 계급사회라고 생각한다. 전입교수로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내와는 주

말부다. 화자에게는 한때 맘을 터놓고 지내는 조선족 출신 강사가 있는데,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조건부 연애를 지속한다. 화자는 아내의 장기간 출장 기간에는 곧잘 미라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게 된다.

“11월의 포장마차”는 공단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수년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운영한다. 유일한 희망은 디자이너라는 꿈을 저당 잡힌 채 임용고시에 몰두하는 누나의 합격이다. 화자는 등록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삶은 끝이 없는 어둠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어떤 기별”, ‘하루’ 등의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나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김용태 소설가는 해설에서 “그의 소설 속 화자는 대개 관찰자로 등장하며 혹은 주인공 시절일 경우조차 관찰자 시점 같은 묘한 느낌을 준다”며 “이는 작가의 오랜 기자 생활이 작품세계에 반영된 것일 텐데 공교롭게도 이런 독특한 시점이 그가 다루고 있는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절묘하게 부합한다”고 평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 장편 소설에도 도전할 생각이며, 인문학과 관련된 글도 꾸준히 쓸 계획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는 명징한 행위”라는 말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농사 짓는 모습과 자세에서 글을 쓰는 이유와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햇볕, 바람, 물과 같은 자연의 부조에 앞서 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비로소 농부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박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2006년 소설시대 신인상 당선으로 창작을 시작했다.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복날은 간다’, 인문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 기행’, 연구서 ‘해한의 세계 문순태 문학 연구’,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 등을 펴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삶의 복잡다단함
다양한 무늬·진실은
소설이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어
소설 쓰는 것 같다



윤이형 소설가, 이상문학상 파문 관련 절필 선언

작년 대상 수상자...“일하지 않는 것이 내 작품 지키는 방법”



‘불합리한 저작권 양도 계약’ 등으로 수상 거부 파문이 일었던 이상문학상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윤이형(사진)이 최근 벌어진 이상문학상 파문과 관련 절필을 선언한 것. 윤이형 작가는 지난달 31일 소설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상문학상을 돌려드리고 싶다. 부당함과 불공정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려드릴 방법이 없다”며 “그 상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없으니 그

만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윤 작가는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일할 수 없다”며 “일하지 않는 것이 내 작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가를 그만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소설가도 수상을 거부하면서 수상자 발표가 연기됐다. 이로 인해 작가 3명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편 199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지금까지 이문열, 최인호, 신경숙, 한강 등 당대 최고 작가들이 수상을 하면서 권위를 이어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국악상설공연 2월 첫째주 공연이 4~8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등근 보름달 아래서 만나는 국악한마당

정월대보름 맞아 4~8일 국악상설공연...광주시립국악단 등 3개팀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주국악상설공연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4~8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민간단체인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광주호남지부, 루트머지 등 3개 팀이 꾸민다.

오는 4일에는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광주호남지부가 ‘천지 하늘과 땅의 소리’라는 주제로 공연한다.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인 ‘금강산 타령’, ‘동백타령’ 기악합주를 시작으로 판소리 ‘수궁가’, 공중무용 ‘춘앵전’을 들려준다.

5일에는 루트머지가 ‘국악, 새로운 흐름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버구춤’, 민요무 ‘새타령’,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 모음곡 ‘아리랑놀이’ 등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6~8일 사흘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선다. 6일에는 ‘新-풍류’라는 주제로 사로우 작곡의 합주곡 ‘셀스타라’, 피리 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등으로 관객과 만난다. 7일에는 ‘축제(festival)’라는 주제로 합주곡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가야금 3중주 ‘오봉산 타령’, 정호승 시인의 시 ‘상사화’를 곡으로 옮긴 ‘상사화’를 들려준다. 정월대보름인 8일에는 ‘붉은 달 그림자’를 주제로 공연한다. 또 축원 덕담으로 앞곡과 ‘비나리’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2월 공연에는 루트머지, 예락, 올라 등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창작그룹 5개 팀이 참여해 젊고 신선한 공연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팀은 평가를 거쳐 향후 광주국악상설공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낭독콘서트’ 모습.

푸른연극마을 ‘낭독연극콘서트’ 시민배우 모집

알베르 까뮈 ‘이방인’ 등 3월부터 진행

1997년 창단한 푸른연극마을은 연극의 현장성을 중시하며 창작연극과 레파토리 연극, 그리고 세계명작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올해는 세계명작연극시리즈 알베르 까뮈의 ‘오해’를 시작으로, 오월연극 ‘오월의 석류’, 학교순회공연,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 6대도시 순회공연, 소극장 낭독콘서트 등을 계획 중이다.

푸른연극마을이 꾸준히 진행해온 희곡낭독 프로그램이 올해도 계속된다. 극단은 올해로 6회 차를 맞이하게 된 ‘시민연극강좌 - 낭독연극콘서트’에 함께할 시민배우를 모집한다.

첫해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시작으로 카프

키의 ‘변신’, 현진건 단편선, 입선의 ‘인형의 집’ 등을 함께 읽고 낭독했던 극단은 올해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소설을 각색해 읽는 연극, 듣는 연극인 ‘입체 낭독극’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알베르 까뮈, 셰익스피어 등 명작소설과 희곡을 전문배우와 함께 희곡 읽기, 희곡분석 등을 소리 내서 읽어보고 연기와 배우수업을 함께 진행하며 낭독 발표도 한다.

모집대상은 책 읽기에 관심있는 시민, 함께 예술공부를 하고 싶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네이버 블로그 ‘씨어터엔버람’과 다음 카페 ‘푸른연극마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